

쏟아진 신기술 수백건 사고 팔고...

12~13일 광주 DJ센터서 기술거래박람회 대학·연구·지원기관 부스 40개 우수기술 선정 이전·사업화 모색

#1. 한국광기술원은 LED(발광다이오드)조명등이 백열등처럼 부드러운 빛을 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직진성이 강한 LED조명의 특성을 배광분포 기술을 적용해 빛이 퍼질 수 있도록 개선해 2010년 특허를 냈다. 이 기술이 가진 사업성을 읽은 광주 첨단산단 내 '엔티씨'가 기술을 이전 받았다. 엔티씨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조명에 익숙한 유럽과 중국 수출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해 성공했다. 엔티씨는 이 기술만으로 내년 수출·내수에서 1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2. 전자부품연구원원은 사위방식 세탁을 기반으로 한 자동보관 시스템을 개발, 2007년 특허출원했다. 이 세탁기는 고압의 물을 이용함으로써 옷감의 손상을 막고 건조·자동분류 기능을 겸비한 1인 맞춤형 세탁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세탁·살균·건조·보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의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날씨·생체리듬별 자동코딩할 수 있는 RFID 인식시스템이 핵심기능이다.

광주 DJ센터가 열리고 있다. '기술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식경제부와 광주시 공동주최한 박람회에는 대학·연구기관 기술이전센터 등 40개 부스가 설치·운영되며, 연구개발·기술거래 유관기관, 기업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8년간 기술거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를 기술거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목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광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 등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신기술이 수 백여종 쏟아졌다. 이 가운데 광주테크노파크는 ▲초소형 휴대용 프로젝터 기술(광주과학기술원) ▲강자성 막대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장치(조선대) ▲OLED 조명 제작을 위한 대면적 증착용 유기물 자동유입장치를 포함한 선형증착원 개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위방식세탁기(전자부품연구원) ▲

초발수성 폴리머 필름의 제작방법(전남대) ▲수중청소로봇(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10개의 우수기술을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특구 내 대학·연구기관 9곳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분석해 유망신기술 100개를 선정, 기술거래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이 기업에 이전된 성과도 냈다. 한국광기술원의 'LED조명장치기술'과 전남대의 'PLC기반 광도파로에 적용할 높은 열광학 계수를 갖는 고분자 증합을 위한 다량체 기술'이 광주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광주 기업인 엔티씨와 피파이에 각각 이전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1회 대한민국 기술거래 박람회가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지역개발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는 지난 11일 목포고용센터에서 전남지역 일자리공시제 집합컨설팅을 개최했다. 올해 전남지역 일자리 공시제 최종 평가에 대비한 이날 컨설팅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일자리 공시제 담당자, 컨설팅지원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지역고용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해 최종평가계획과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홍영철 광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의 특강과 함께 지역 일자리 공시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기관 워크숍도 진행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일용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 8만4000원

월 21일 근로... 퇴직공제부금 가입 28%뿐

광주지역 일용 건설노동자의 한 달 평균 일당은 8만 4000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지역 노동인권단체인 '팜&꿈 지음공동체'가 광주시로부터 인권단체협력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최근 일용 건설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용 건설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근로일당은 21일이고, 평균 일당은 12만 1000 원으로 조사됐다. 일용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일

당으로 받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30일 기준) 평균 일당은 8만 4700 원으로 추산됐다. 한 달 평균 근로일을 일수별로 보면 16일 이상 21일 미만은 36.0%로 가장 많았고, 21일 이상 25일 미만(21.8%), 25일 이상 27일 미만(21.0%), 16일 미만(13.0%), 27일 이상(8.2%) 순이었다. 평균 일당을 액수별로 보면 13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은 37.8%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 13만 원 미

만(26.6%), 8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19.8%), 8만 원 미만(13.0%), 15만 원 이상(2.8%) 순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된 일용건설노동자는 28.0%에 불과했다. 퇴직공제부금 평균 수령 가능액은 355만 2000원이었다. 일용 건설노동자의 21%는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이유에 대해서는 31.0%가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근속연수는 14년 7개월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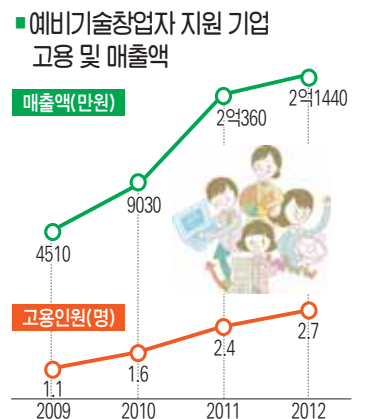
광주전남중기청 지원 예비기술창업 109개사 3년간 보니

매출 4.8배, 고용 2.6배 늘어

업체 생존율은 96%서 68%로 낮아져

중소기업청이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비기술창업자 지원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광주·전남·제주지역의 2009년 지원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조사한 결과, 창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 4500만 원에서 2012년 2억1400만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58.5% 성장했다. 평균 매출액 변화는 2009년 4510만 원, 2010년 9030만 원, 2011년 2억360만 원, 2012년 2억1440만 원 등이다. 또 이들 업체의 생존율은 65.1%로 일반 창업업체 5년 미만 생존율 48%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9년 말 96.3%이던 생존율은 2010년 81.6%, 2011년 68.8%로 낮아졌다. 창업 당시의 업체당 평균고용은 1.1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6명, 2011년 2.4명에 이어 2012년 10월

현재 평균 고용인원은 2.7명으로 늘어났다. 창업 업종은 전기전자(21.4%), 정보통신(19.7%), 기계재료(17.8%), 화학·환경에너지(15.9%), 식품(8.1%), 공예(4.5%), 기타(12.6%) 순으로 나타나 산업 추세를 반영했다. 전반적으로 일반 창업기업보다는 생존율이 높았고 일부 성공사례도 나타나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에 입주한 (주)인엘시테크놀로지는 액정기술을 이용한 광장 가변 필터 개발과제를 사업화해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획득하고, 2011년에 매출액 5억4000만 원, 신규고용 15명을 창출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에 입주한 초이스라이텍(주)은 파워내장형 LED(발광다이오드) 램프 개발과제를 사업화해 독일 인증을 획득하고, 2011년에 매출액 8억 원에 4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편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 등의 창업 설비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화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제주지역에서 모두 309개 과제에 139억9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중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참여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료·마케팅·공정관리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타이어 부문

금호타이어 5년 연속 1위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한국능률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2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승용차 타이어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은 한국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순수

추천 의향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성 고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매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내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호타이어는 소비자, 내구재, 서비스업 등 총 96개 산업군 중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32.3점을 얻어 업계 평균인 25.8점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금호타이어는 엄격한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자사의 특화유통점 '타이어프로' 전국 380개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과 경영 워크숍, 기술 연수 등을 꾸준히 실시해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 고객 만족도 상승을 위해 프로슈머(소비자는 물론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과정에도 참여하는 소비자) 활동을 수행할 승용차용(PCR),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고객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기업 10곳중 7곳 연말 보너스 지급계획 없어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연말 보너스 지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지난 8~11일 국내 359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9%인 240개사가 '연말 보너스 지급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말 보너스 지급계획이 있다고 한

곳은 77개사로 21.4%에 그쳤으며 나머지 42개사, 11.7%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보너스 지급 기업들의 보너스 액수란 '기본급 대비 50%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80% 미만'은 27.3%, '80% 이상~100% 미만'은 3.9%였다. '100% 이상'은 32.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75.44 (+10.82)
▲ 코스닥지수	485.33 (+3.74)
▲ 금리 (국고채 3년)	2.83% (0.00)
▲ 원·달러 환율	1075.00원 (-1.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법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쳐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승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